

2012. 8. 30.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2년 8월 30일(목) 배포시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KDI 홍보팀

TEL 02) 958-4030 FAX 02) 960-0652 E-mail press@kdi.re.kr

UN 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 중남미 지역에 한국 경제개발 경험서 보급

- 『한국경제60년사』 스페인어판 발간 -

- KDI(원장: 현오석)의 연구책임 하에 부문별 연구기관들의 공동 작업을 통해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가 2010년 발간한 『한국경제 60년사』 총괄편이 공신력 있는 중남미지역 경제기구인 UN경제사회이사회 산하 UN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에 의해 한국경제발전에 관한 최초의 스페인어판 서적으로 번역·출판됨.
- 한·중남미협회(회장: 구자훈 LIG 문화재단 이사장) 김원호 사무총장(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장)이 2011년 對스페인어권 한국 소개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경제를 주제로 선정, UN경제사회이사회 산하 UN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ECLAC, 스페인어 약자로 CEPAL)에 의뢰해 진행한 이번 출간을 통해,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로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의 교류 확대와 우호 증진의 계기가 마련됨.
- 『한국경제60년사』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한국의 초단기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대규모 자료집으로서 국내외 전문가 및 정책입안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한국경제60년사』 스페인어판은 경제일반, 산업, 대외경제, 국토·환경, 사회복지·보건 등 5개 부문, 총 5권으로 구성된 본보고서와 영

문판 총괄 단행본 『The Korean Economy: Six Decades of Growth and Development』에 이은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남미 지역 정책당국 및 학계의 관심이 매우 높아 실효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UN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는 중남미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가장 공신력 높은 정책개발기구로서, 『한국경제60년사』 스페인어판은 홈페이지를 통해 pdf 파일로 무상 배포됨으로써 지역 내 한국 경제개발 노하우 전파에 크게 기여할 것임.

□ KDI 현오석 원장은 “최근 과테말라, 우루과이, 에콰도르 등 여러 국가의 정부대표단이 경제개발 경험 전수를 위해 함께 방한할 만큼 한국의 발전 경험에 대한 중남미 국가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면서, “스페인어로 번역된 『한국경제60년사』가 이들 국가의 경제발전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길 바라며, 이를 통해 모범적인 협력을 통한 인류 공생발전의 글로벌 리더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제고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힘.

□ 최근 들어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2006), 엘살바도르 대통령(2006), 파라과이 대통령 당선자(2008), 에콰도르 대통령(2010), 온두라스 대통령(2011), 코스타리카 대통령(2012) 등 각국 정상들이 KDI를 직접 방문하여 자국 경제개발을 위한 롤모델로서 한국의 발전경험을 청취하는 등 큰 관심을 표명, KDI는 중남미 국가들의 고위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경험과 정책 수립 및 운용 노하우를 공유해 왔음.

- 또한 KDI 국제개발협력센터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지역 9개 국가를 대상으로 61개 주제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해 11월에는 도미니카공화국의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레오넬 페르난데스 대통령으로부터 KDI원장과 관련 연구자가 감사훈장을 수여받은 바 있음.

◆ 문의: 장혁순 KDI대외협력실장 (02-958-4031)